

전국 문인들 광주서 오월 교감한다

문화로 만나는 오월

6 광주전남작가회의 오월문학제

19~20일 5·18기록관 등서 개최
5·18문학상 시상·포럼·답사 다채
옛모역서 '시산문 걸개 시화전'도

5·18민주화운동 38주년을 맞아 광주전남작가회의(회장 박관서)는 문학의 이름으로 오월을 기리기 위해 오월문학제를 개최한다.

이번 문학축전에는 오월문학포럼, 5·18문학상 시상식, 오월항쟁 추모문학의 밤, 5·18사적지 답사 및 추모식, 시산문 걸개 시화전 등 다채로운 행사가 꾸려진다.

이번 문학축전에는 오월문학포럼, 5·18문학상 시상식, 오월항쟁 추모문학의 밤, 5·18사적지 답사 및 추모식, 시산문 걸개 시화전 등 다채로운 행사가 꾸려진다.

먼저 식전행사로 오월문학포럼이 열린다. 19일 오후 2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대강당에서 오월문학축전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포럼에서는 모두 3개의 분야로 나눠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주제1 '오월문학사 정립을 위한 문학포럼'에서는 채희운 소설가의 사회로 이승철 시인 '오월문학의 역사적 흐름과 전망', 박몽구 시인 '오월시문학의 전개과정 및 성과', 김영삼 강사 '오월소설문학의 흐름과 점검'이 예정돼 있다. 주제2 '광주전남작가회의 30년사 정립을 위한 문학포럼'에서는 안오일 시인 사회로 이동순 조선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광주전남작가회의 30년의 전개와 성과', 이진 소설가 '광주전남작가회의 문학사 정리', 박두규 시인 '순천



'오월문학제' 기간에 열리는 '시산문 걸개 시화전'.

(광주일보 자료사진)

작가회의 문학사 정리', 박관서 시인 '목포작가회의 문학사 정리', 이육근 시인 '여수작가회의 문학사 정리'가 발표될 계획이다.

오후 5시부터는 5·18문학상 시상식이 있을 예정이다. 여수작가회의 사무국장인 우동식 시인 사회로 분상(이종형 시인 '꽃보다 먼저 다녀간 이름들') 및 신인상(시 조성국·소설 박철수·동화 한완식) 시상식과 '춤추는 나무 예술단'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이어 오월문학축전 개막식인 2부 행사가 이어진다.

양기장 시인의 여는 시낭송을 시작으로 이경자 한국작가회의 이사장의 축사, 박관서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의 인사말, 나종영 오월문학축전 조직위원장의 추진 경위가 발표된다.

이종형 제주작가회의 회장의 연대사 다음으로 시산문 낭송이 진행된다. 안오일(광주), 부복정(제주), 범현이(광주), 이상권(대전), 이인휘(서울), 배재경(부산), 양문규(충

청)가 나선다. 초대가수 류의남은 '임을 위한 행진곡' 외 노래를 선사한다. 이어 또다른 시산문낭송 무대에는 김명은(인천), 유용주(전북), 임동화(서울), 오성인(광주), 고희림(대구), 함순례(대전)가 오른다.

이어 3부 오월항쟁 추모문학의 밤은 전국에서 참여한 작가들과 함께하는 문학의 시간이다. 오후 7시부터 남원 추어탕(아시아문화전당 주차장 정문 맞은편)에서 각지에서 방문한 문인들과 친교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20일 오전 9시에는 5·18사적지 답사와 추모식이 진행된다.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조진태 시인의 안내로 신묘역 참배가 예정돼 있다. 이어 구포역에서 추모식을 거행하고 걸개시화 감상을 할 계획이다.

한편 시산문 걸개 시화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망월 구포역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작가회의 전국 각 지회 회원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문의 062-523-7830.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레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서 '광주가 통곡할 때 그들은 웃고 있었다'(광주일보 5월10일자 1면 보도) 사진을 보고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상처입은' 광주시민들에게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0일 광주시립미술관 2층 전시실에서 열린 '2018 민주·평화·인권-세계민중문화전'의 개막식. 이날 전시회에 참석한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난 9일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이 발표한 1980년 광주 미공개 영상물의 '사진 한 장'을 언급하며 축사를 시작했다.

된 사람들', '죽은 자' '학살' '광주의 레퀴엠' 등의 작품은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의 미공개 영상물을 화폭에 재현해 놓은 듯 강렬했다. 마치 '그날, 그곳에서' 사진을 찍은 민들에게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0일 광주시립미술관 2층 전시실에서 열린 '2018 민주·평화·인권-세계민중문화전'의 개막식.

이날 전시회에 참석한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난 9일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이 발표한 1980년 광주 미공개 영상물의 '사진 한 장'을 언급하며 축사를 시작했다.

문화광주의 추모 방식

문제의 사진은 1980년 5월27일 광주를 피로 물들인 소준열 전남북

계엄분소장과 전두환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박준병 제20사단장이 옛 전남도청 앞에서 활짝 웃는 모습이다. 계엄군의 집단발포와 진압으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그날, 사진 속 두 사람은 '미션을 완수한' 개신장군의 표정, 그것이었다. 38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흑백사진에선 당시의 처

참했던 상황이 생생하게 전해졌다. 세계민중문화전은 광주시립미술관과 5·18 기념재단이 광주민중

항쟁 38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획한 특별전이다. 20세기 반전평화 미술가인 독일 출신의 케테 콜비츠, 앙상적 일본인으로 동

아시아의 역사적 아픔을 형상화한 도미야마 다에코, 민중들의 삶과 신명을 표현한 한국의 판화가 오윤 등 3개국 예술가의 작품 50여 점을 한자리에 모았다.

이들 출품작 가운데 유독 내 시선을 끈 건 도미야마 다에코의 5월 판화컬렉션이다. '군대', '포로가

이 같은 남다른 작가정신이 있었다. 1971년 '재일간첩단 사건'에 연

루된 서승 객원교수(우석대)를 면회하는 등 한국의 양심수 구명에 앞장섰던 그녀는 '광주 소식'을 전해준 해를 후 불면의 밤을 보냈다. 이번 판화컬렉션은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탄생한 작품들이다.

서른여덟 번째의 5·18을 맞는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추진 등 미완에 그쳤던 5·18의 진실 규명에 한 발짝 다가섰다. 하지만, '5월의 일상화'는 여전히 더딘 것 같아 안타깝다. 그렇다고 '특별한 추모'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한번쯤 그날의 깊은 슬픔과 오롯이 마주하기', 평범한 시민들이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추모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삶이 조금 바쁘고 힘들더라도 '오월 광주'를 노래한 전시하나 음악회에 들르시길. 5월이 가기 전에.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ACC 오픈아카데미' 프로그램 21일까지 공모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2018 ACC 오픈 아카데미-지역참여형 프로그램 공모'에 참여할 지원자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

ACC가 올해 처음 시도하는 'ACC 오픈 아카데미-지역 참여형 프로그램'은 이룬 중심의 아카데미와 달리 지역의 문화예술기획자들과 함께하는 실무 워크숍 형태로 운영된다.

공모 분야는 일상생활을 주제로 공유와 연대 가능한 수요자 중심의

'생활밀착형 워크숍', '세대 공감 워크숍',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최대한 활용한 '장소 특화형 워크숍' 등 세 분야로 나누며 총 4개 단계를 선별한다.

최종 선정된 단체의 프로그램은 'ACC 오픈아카데미'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7월~8월 기간 동안 ACC 내 지정공간에서 시민들과 함께 진행된다. 문의 062-601-402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곡성 성륜사에 아산 조방원 송덕비

아산 조방원(1926~2014) 선생 송덕비 제막식이 지난 25일 곡성 성륜사(주지 명원스님)에서 열렸다.

아산 선생은 인간의 사육을 버리고 자연 모습 그대로의 청빈한 삶과 숭고한 예술혼을 실현한 인물로 특히 파격적이고 독창적인 남종화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며 마지막 남종화의 대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큰 스승다운 아산의 모습은 가진 것 모두를 사회에 환원한 데서 잘 드러난다. 아산은 청화대조사와의 인연으로 대지11만평, 육화당·안심당(문화재 등록), 백련당 그리고 마음까지 공양해 성문사 창건을 견인했다.

최근 전통사찰로 지정된 성륜사는 아산 선생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아산이 생전에 조성한 육화당 연못가에 송덕비의 빛돌을 세우고 제막식을 거행했다.

평소 화업을 이어가며 우리 문화를 소중히 여겨온 아산은 시·서·화, 유물 등을 수집, 680여 점을 전남도에 기증했다.



아산 조방원 송덕비 제막식이 최근 성륜사에서 열렸다.

신안 지도에서 태어난 아산 선생은 남종 허견 선생을 사사했으며 남종화의 독자적인 회화 세계를 구축, 한국화단의 전통성을 재확립했다.

또 우리나라 최초의 도립미술관인 '전라남도육과미술관'을 개관하고 문화예술 전반을 지원·육성하는 아산미술문화재단도 설립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프리마켓 '아름다운 예술시장'

19일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유·스퀘어 문화관이 오는 19일 유·스퀘어 2층에서 '아름다운 예술시장'을 개최한다.

'아름다운 예술시장'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자기 작품을 알리고, 지역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한 프리마켓이다. 작가들이 직접 만든 비누, 옷, 팔찌, 인테리 소품과 예술품들을 구입할 수 있다.

예술시장에서는 누구나 셀러로 참여해 작품을 판매하거나, One Day 작업 공방을 열어 자신의 기술을 나눌 수 있다. 또한 예술시장이 열리는 날 야외광장에서 직접 공연도 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작가는 유·스퀘어문화관 홈페이지(www.usquareculture.c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메일(sekmax27@naver.com)로 보내면 된다. 신청서는 매달 1일~10일까지 받고 있다.

아름다운 예술시장은 매일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30분~오후 6시30분까지 열리며, 다음달 아름다운 예술시장은 6월 16일에 열린다. 문의 062-360-8436.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여농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8년 5월호

4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버스킹' 남한 문화로 자리잡다

지역 축제, 버스킹으로 매력 충전
광주프리마켓페스티벌 4월 개막
'힐링 버스킹' 프로그램, 버스커 사랑 그란 영화

5·18 기획

계속 불려야 할 5·18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예행이 만난 이사람
'신형 잠수함' KIA타이거즈 꽃미남 사이드킥, 박정수

전시 리뷰 <호남의 현역 작가들 II> 광주시립미술관, 전북도립미술관 합동전시

노중훈의 꿈의 여행 20 운명적인 사랑과 맛있는 음식의 도시 미국 시애틀

동네 책방에 빠진다-책방별곡 2 '북 로맨스' 커뮤이 운영하는 영국 프리로즈힐 북스 & 커나한 북스

에앙 초대석

『이순신의 7년』 완간한 작가 정찬주

"인간 이순신" 숨결 담았어요

문화 화제
윤곽 드러낸 2018광주비엔날레

문장이 숨쉬는 문학관을 찾아서 7 '월북시인' 봉인 문 첫 문학관 오장환 문학관

트렌드 따라잡기 20 돌맹이 키워 볼래요? 진화하는 혼자 놀기

지역의 문화 행사
눈부신 전남의 5월 축제

정문수의 위대한 예술가들의 저항과 선택 20 소설가 권터 그라스 vs. 극작가 하이너 뮐러

에앙수신부 공동 기획-한국의 국가어항 20 소박함과 화려함의 남해안권 국가어항들

전통, 역사와 마주하는 전남도시 다주 20 州

황포돛대 타고 시간 여행 - 목사골 오월의 푸르름 속으로